“청년 주거·노인 치매 국가책임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2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광주시당 후보들 공약 발표…본격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 4·10 총선 후보들이 26일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 총선 후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심판 광주부터’를 기치로 시당 공통 공약과 각 후보의 지역구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 정진욱(동남갑)·안도걸(동남을)·조인철(서구갑)·양부남(서구을)·정준호(북구갑)·전진숙(북구을)·박균택(광산갑)·민형배(광산을) 후보가 참석했다.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매물을 국가 매입 후 공공주택화해 청년 주거 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사기를 방지하겠다”며 “만 20세 청년,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20년 공공 주거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는 치매 전담 요양시설을 유치하려 했으나 운영할 기관을 찾지 못해 취소된 경험이 있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광주 공립형 치매 전담 요양시설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연금 개혁의 하나로 장기 요양보험을 건강보험에 포함하겠다”며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를 함께 돌봄으로써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동체 돌봄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문화누리카드는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원되고 있어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만 6세 이상,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 모두를 문화누리카드 지급 대상으로 확대해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시당은 이 밖에도 광주 전체를 테스트베드 X-MAS(모빌리티(Mobility)·인공지능(AI)·반도체(Semiconductor) 융합(X))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내용과 서남권 최대규모 광주 창업밸리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총선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을 해결할 공약을 가져와 발표했다.

동남갑 정진욱 후보는 대촌 도시첨단 국가산업단지와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추가 유치와 백운교차로 혼잡 등 남구 만성 교통 체증 해소를 제시했다. 동남을 안도걸 후보는 광주 원도심을 미래 먹거리 산업(인공지능·바이오·문화관광) 메카로 육성하고 동·남구 핵심 민원 해결 7대 프로젝트 추진을, 서구갑 조인철 후보는 상무 도심융합특구 조속한 완성과 양동시장 현대화, 광주천 자연화를 약속했다.

서구을 양부남 후보는 서구 서창 중심으로 남구와 빛가람혁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구축 등을 제안했다. 북구갑 정준호 후보는 서방천 생태하천 복원과 우산근린공원 반려견 동반 공원으로 조성을, 북구을 전진숙 후보는 북구를 아시아 문화·관광 콘텐츠 거점으로 조성하고 교통 체계 정비를 통한 도시 단절 공간 회복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광산갑 박균택 후보는 평동 포 사격장 폐지 및 복합복지타운건립 기반 마련과 농촌 유입 인구 증가 정책 추진을, 광산을 민형배 후보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광주·전남 에너지 메가시티 추진 등을 발표했다. /김해나 기자 khn@

“송영길 석방해달라” 가족의 호소

광주 서구갑 옥중 출마…아들 주환씨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4·10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아들이 광주를 찾아 송 대표의 석방을 호소했다.

송 대표의 아들 송주환씨는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세 한번 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송 대표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법원을 향해, 광주시민 연대의 힘을 빌려 다시 한번 애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1일 송 대표가 보낸 편지를 읽으며 울먹였다.

송 대표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시련의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더욱 사랑으로 뭉치고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거야. 아빠 없이 아내, 딸, 아들이 선거운동 할 모습을 생각하니 아빠 눈물이 쏟아진다”며 “이번 선거는 완전히 가족의 힘으로 싸우는 선거다”고 전했다.

송씨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권 정치인이 많지만 유독 송 대표만 지금 차가운 겨울 감옥에 억류돼 있다”며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은 송 대표에겐 언감생심의 배려가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회 원로와 4400여명의 시민들도 보석 석방에 서명해 주셨다”며 “광주시민의 염원인 검찰 독재 타도,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시대정신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할 송영길을 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는 기자회견 후 송 대표가 보내온 음성 메시지를 들려줬다.

송 대표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모신 곳이 광주 서구다. 돌고 돌아 어머니의 품 광주 서구갑으로 왔다. 손을 잡아주시면 반드시 윤석열 탄핵 전선에 선봉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송 대표는 최근 보석을 요청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송 대표에 대한 법원 보석 석방 결정은 오는 29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나 기자 khn@

4·10 총선 누가 뛰나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사진은 기호순)

전국구 인지도 ‘박지원 득표율’ 관심

해남완도진도

전 국정원장 정치권서 존재감 서울·인천 등 전국 유세 지원

박지원(민)

곽봉근(국)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상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득표율 여부다.

‘박지원’ 하면 누구나 아는 인지도가 재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앙 정치권에서의 존재감을 갖췄다. 하지만 본격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타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감지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홀함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지역 정치권 우려가 나오면서이다.

박 전 원장은 경선 승리 뒤 곧바로 안귀령(도봉갑), 이정헌(광진갑), 이지은(마포갑)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전국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아직 당선된 것도 아닌데 지원 유세보다 지역을 더 많이 돌며 유권자들과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 전 원장측도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해남 완도 진도를 도는 두더지 생활을 하고 밤 시간 서울로 간다”, “전국적 대파 산지 해남·완도·진도에서는 대파 한 단 값이 3000~5000원이다. 대파는 뿌리가 아니라 단이 단위”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발언을 비판하는 등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윤재갑 현역 의원과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조직 내 갈등도 최근 윤 의원과의 만남, 완도 지역 군의원 간 대화를 통해 ‘원팀’으로 협력키로 했다는 점에서 지역 여론도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령에 대한 일각에서의 우려도 “선거때만 되면 누구보다 펄펄 나는 인물”이라는 중앙 정치권에서의 박 전 원장에 대한 평가가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 때문에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완도의 경우 연도·연륙교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는 주문이 많고 진도에서는 조도와의 연륙교 개설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완도·진도·해남을 아우르는 관광·문화 벨트를 현실화해달라는 게 지역 유권자들이 강조하는 현안이다.

국민의힘은 곽봉근 자당 국책자문위원회 고문을 내세워 지지율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진도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한 곽 후보는 “관광산업과 고령화 노인들을 위한 정책 발굴이 인구 유입을 위해 절대적”이라며 파격 공약으로 유권자 마음을 잡겠다고 했다. 65세~70세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100세까지 기초연금 외 최대 50만원의 품위유지비로 고령층에 관심을 갖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곽 후보는 “농사만 짓고 고구마만 심어서는 살 수 없는 현실”이라며 “해남·완도·진도를 아우르는 유배문화관을 조성하고 어업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관광산업으로 북적거리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곽 후보는 지난 1992년 14대 총선(신정치개혁당)을 시작으로 제 1회 지방선거(1995년·진도군수 출마), 제 3회 지방선거(2002년·진도군수 출마), 제 5회(2010년·진도군수 출마), 제 6회(2014년·진도군의원 출마) 지방선거에 나서는 등 정치권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총선 브리핑

이보라미 “정권 심판 선두에 서겠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이보라미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23일 “1700만 촛불의 힘으로 이뤄낸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키는 ‘정의로운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서겠다”면서 녹색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점 깊이 성찰하고 죄송하다”면서 “그럼에도 진보 정치가 일궈낸 성과가 적지 않다. 지하철 노약자 엘리베이터는 진보정당의 1호 법안으로 시작됐고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앞장서 이끌고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23%로 끌어낸 것도 녹색정의당”이라며 거대양당과의 차별화된 대안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의료 수급 불균형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 뿐 아니라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세종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초고령화 도시에 진입한 전남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이 시급하다”고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광주와 울산에만 없는 의료원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 확대를 전방위적으로 중단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영암 출신으로 중앙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근무하다 영암군의원, 전남도의원을 지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숩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可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풍수 · 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3. 13(수)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뚜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4. 3. 6(수)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모던건설 MODERN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